

###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동해학원 준공식 진행

동해지구 원산시에 원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멋쟁이궁전이 일떠섰다.

동해학원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후대들에게 마련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학원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교사와 원아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려진 기숙사, 식당, 체육관을 비롯한 모든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마련된 동해학원 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사를 최후일 인민보안상이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새로운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동해학원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동해학원은 새 세대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따뜻이 품어안아 줄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솟아난 원아들의 요람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십 차례에 걸쳐 학원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건설 전과정을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보안성, 인민내무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학원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으며 많은 단위들에서 물질량면의 지원으로 공사를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고 그는 말하

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온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친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연설자는 일군들과 학원종업원들이 모든 원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앞날의 주인공들로 여세기 키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학원교직원들은 자질을 높

이고 교육내용과 방법, 형식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시는 끊임없이 개선하며 원아들이 그들의 밝고 명량한 웃음소



리, 노래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원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며 애국의 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건물들과 시설물들, 비품들을 정히 다루고 관리를 짜고들어 당의 사랑과 은정을 깊이 전해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학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원아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게 함으로써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파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원아들과 함께 훌륭히 꾸려진 학원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학습하는 과정에 이룩한 1 5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2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개막사에서 연설자는 모든 학생청년들이 전시회를 통하여 학습과 과학탐구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소개전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담계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 진행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나노기술국,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농업연구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이 참가하는 전시회에는 나노기술부문에서 세계적인

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연구완성된 19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었다.

전시회는 나노리론 및 측정, 나노재료, 나노농업 및 의학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나노기술발전 전략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습이 있었다.

본사기자



이미 유엔무대에서 한 민족을 《완전멸살》 시켰겠다고 하여 온 세계를 경악케 한 악당질의 능수 트럼프가 또다시 양갈진 독설을 늘어놓아 란폭한 발언만 일삼는 불량배로서의 자기의 기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놓았다.

얼마전에도 트럼프는 앞으로 있게 될 아시아행각을 앞두고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조선의 도발에 대해 믿어지지 않

리만큼 완전히 준비되어있다. 아마 얼마나 잘 준비되어있는가를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될것》이라는 회떠운 수작을 늘어놓았다.

또한 어느 한 나라의 《대북제재동참》에 대해 추어올리며 그 나라가 《북조선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돕고있다.》는 낮간지러운 소리도 쉼쳐냈다.

트럼프가 쉼쳐댄 수작질은 나날이 강화되는 공화국의 불패의 국력앞에 전진공공하고있는자들의 가소로운 객기로서 국도의 궁지에 몰린 정치무팔층의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로총이 보수 《정권》이 로동분야에 남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23일 《국회》앞에서 투쟁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적폐 오적청산 민주로총 집중투쟁 선언문》을

가련한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트럼프는 풍수없는 폭언으로 누구를 어찌보려고 객적을 만용을 부려본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무진막강한 힘을 가지고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주제에 아무렇게나 허바닥을 나불대고있다.

## 가소로운 객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이전 미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그렇게도 악을 쓰며 공화국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미국을 파멸의 구렁렁이에 더 깊숙이 밀어넣고있다.

현명한 사람은 양보해야 할것과 피해야 할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무지막한 트

럼프는 반공화국압살에 광분하다가 종시 어찌지 못하고 락향의 길을 간 선입자들을 비롯으면서 자리가 조선을 어떻게 압살하는가를 보라는 식으로 날뛰고있다.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듯이 트럼프의 대조선정책은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고있으며 미 행정부내에서는 그를 비호하고 지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있다.

## 가소로운 객기

트럼프나 미국에 있어서 공화국을 어찌볼수 있는 수단이란 아무것도 없다. 무지무능한자일수록 허세에 매달리는 법이다.

트럼프가 갖은 폭언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는것은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내면의 욕망과 그렇게 할수 없는 현실적차이에서 오는 히스테리적광기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미국은 물론 온 세계가 트럼프의 말장난질에 조소를 퍼붓다 못해 너무도 지켜워 역스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트럼프가 《대북제재 압박동참》을 독려한다고 하면서 주변국을 하인 열러대듯 낮간지럽게 휘둘린것도 저들에게 공화국을 압박할 힘이 더는 없다는데로부터 나오는 아우성이나 같다.

트럼프가 나이는 들었다고 하지만 골통은 빈 깡통이고 노는 꼬락서니가 영코홀리게 한가지이다.

공화국의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은 이미 최종완성을 위한 목표달성이 다 이루어진 단계에 있다.

이제 남은것이 있다면 부질없는 객기를 부리지 못하게 미국의 기를 꺾어놓는 주체조선의 본때를 보란듯이 파시하고 세계의 평온을 가져오는것뿐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한지도 시간이 쉼 흐른것같은데 이젠 세상물정도 좀 알고 말도 심사숙고해서 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그렇게 체신머리없이 할 말, 못할 말 가림없이 마구 내뱉다가는 언젠가는 꼭 변을 당하는 법이다.

최명선

### 민주로총 집중투쟁 선언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1 700만초봉이 반민주, 반로동, 반민중투쟁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23일 《국회》앞에서 투쟁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적폐 오적청산 민주로총 집중투쟁 선언문》을

산요구를 더이상 허공에 웨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국회》—보수정당, 검찰과 로동부, 재벌과 대리인 등을 《로동적폐 오적》으로 규정하고 깃잡힌 로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중투쟁에 돌

입한다. 선언문은 지난해 겨울의 박근혜집권투쟁은 초봉의 힘, 민중의 힘, 로동자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민주로총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천하제일의 배짱가를 모시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고있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군사적위협과 제재소동으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지만 조선은 그에 아랑곳없이 배심든든히 자기가 갈 길을 가고있다. 다른 나라같으면 열백번도 더 굴복하였을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어떻게 되어 조선이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미국의 핵공갈과 제재책동에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는것인가.

이는 신념과 의지에서, 담력과 배짱에서 제일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을 이끌고계시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자신도 탄복할 정도이라고,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그를 따를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하시었다.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은 령장의 필수적기질이다.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강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굽어보는 드센 담력과 배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천품이다.

상상할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비상히 강화발전된 우리의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단호히 다스릴것이다.

미국이 부질없는 경계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뿔리 건드린다면 사상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의 늑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다.

바로 이것이 용약무도한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에 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트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강경립장이고 배짱이다. 올해 조선이 핵무력완성의 길에서 다발적, 연속적으로 일으킨 특기할 사변들은 그이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위대한 승리이라는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란 《북극성-2》형 시험발사의 완전성공,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트 《화성-12》형 시험발사에서 의 완전성공,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트시험 발사에서의 성공, 대륙간탄도 로켓트 《화성-14》형 시험발

사에서의 련이은 성공, 대륙간탄도로켓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등은 미국을 상대로 한 조선의 초강경대응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이루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략적결단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쾌승이었다. 그이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에 의하여 조선은 존엄높은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

은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울해에만도 세차레에 걸쳐 전대미문의 유엔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지만 미국 식허세가 조선에는 조금도 통할수 없다. 조선에 대한 사상 류례없는 제재와 압박이 오히려 자위적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함께 핵무력완성의 시각을 박두하게 하였으며 미국이 핵악몽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미국에서는 조선의 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

람들이 70%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정객들속에서도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제재와 압박, 군사적선력으로는 핵무력완성에 가는 조선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미국의 강권과 위협에 맞서 제할소리를 다하고 제갈길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있다면 오직 하나 강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드센 배짱

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을 모신 조선뿐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공장에서 생산한 질좋은 제품들을 보시는 그이의 만면에 환한 미소가 어리어있었다. 그시각 남조선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호전세력들이 핵항공모함전단과 수습척의 전투함선들을 동원하여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었다.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이의 태연자약한 모습과 환한 미소에는 천만대적이 달려들어 도 끄떡하지 않는 백두령장의 역센 담력과 배짱, 승리의 신심이 비껴있었다.

그이의 위인상을 칭송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김정은위원장은 대단한 지도자이다. 눈한번 꿈쩍하지도 않는다. 미국과 맞장을 뜨려는 지도자가 세계에 있는가. 정말 대단하다.》고 경탄과 흠모심을 터치였다.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위원장님께서 웅비무쌍한 령군술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정을 담아 두팔을 높이 들어 만세를 웨친다.》고 격찬하였 다. 미국언론들도 그이의 담력과 배짱에 대하여 《미국을 몰아내도 되로를 아예 막아놓고 몰아내니 너무 무섭다.》,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실행하고야마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평하였다. 한다면 반드시 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에 의하여 조미대결전에서 조선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그이는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하제일명장이시다.

본사기자 고성호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류경원을 돌아보시었다. 중앙홀에서부터 인민들의 편에 맞게 의자도 놓아주고 청양음료매대도 꾸려놓을데 대하여 이르신 그이께서는 온도가 90℃나 되는 건식한증칸에도 들어가보시었다. 한증칸을 둘러막은 유리벽체를 만져보시던 그이께서는 유리이음점으로 열손실이 있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을 가르쳐주시었다. 2층에 있는 소금한증칸과 소나무한증칸, 증류식한증칸을 차례로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한증칸 휴식홀의 의자에는 일반천을 씌우지 말고 소독수로 수지물을 입힌 뽕뽕한 천을 씌워야 한다고, 대중목욕탕 같은데는 지금처럼 호화로운 형식을 취하는것보다 위생성을 보장하는것이 첫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쁜 병에 걸릴수 있다고 하시었다. 미안실과 객실,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 지나칠수 있는 리발실의 소독수에 이르기까지 깊은 주의를 돌리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 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었다.

**모든 평가의 기준**

주체104(2015)년 1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첩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었다. 음료작업반, 빵작업반, 파자작업반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식료품이 가득 쌓여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이께 동행한 일군이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을 인민들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다 좋아하는 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라고,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정세를 몰아온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적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근 50년전에 있는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도 그러하였다.

1968년 1월 《푸에블로》 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되자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푸에블로》 호가 공해에 있었다고 허위보도를 날리고 그에 대한 나포는 《국제법위반》이기때문에 조선측이 《사죄》하고 승무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미국의 오만방자하고 무분별한 위협공갈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그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고사령관이라는 립장에서서 《푸에블로》 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결심채택을 해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이께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 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푸에블로》 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으며 먼 후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우리가 미국 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고 하시었다.

주석님께서서는 후날 그때 김정일동지의 결심을

## 령장의 담력과 지략 (I) 조선이 받아낸 항복서

들으면서 그 배짱이 마음에 꼭 들었다고, 그 배짱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마다른 궁지에 빠진 미국은 침략자, 전쟁광신자로서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푸에블로》 호와 그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보복 조치》로 조선의 항구를 《포격》하고 《봉쇄》하겠 다. 원산을 공격하고 그 배를 빼앗아가겠다고 하면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수습어척의 대기동함선전단을 조선동해에로 내몰았으며 일본에 있던 2개의 비행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었다. 그리고 본국에서 1만 4 600명의 예비역공군과 해군항공대, 지원부대의 소집을 명령하고 해군예비대의 퇴역을 중지시켰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 일본 《자위대》에는 《비상동원령》을 내리게 하였다.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초강장상태가 조성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는 세계를 진감시키는 폭탄선언이 울려나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당장 전쟁을 일으킬것처럼 미쳐날뛰던 미국의 기는 서리맞은 풀잎처럼 속어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국놈들이 허장성세하면서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지만 돌아갈 때에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앞에서 적대적인 정략행위를 인정하고 항복서라도 내야 제발로 돌아갈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세상사람들은 우리가 미국놈들로부터 항복서를 어떻게 받아내는가를 보

며나버렸다. 미국병사들의 포로생활은 336일동안의 긴 세월이였고 같은 해 12월 23일 미국정부가 령해침범을 인정, 사죄문을 발표하고서야 겨우 석방되었다.

... 조선에서 패배한 존슨 대통령은 재선되지 못했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북조선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력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케네디의 꾸바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기록화될 거둬 방영되고있지만 이 《푸에블로》 호나포사건을 둘러싼 조미군사대결과 미국의 굴복은 그 이상의 력사적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어느 도가 이기는가

## ◆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7 ◆

수많은 참관자들과 애호가들의 기대와 열띤 응원에서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7은 장엄장면들이 이채롭고 어느 경기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지난해 경기에서 이긴 팀이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패하는가 하면 로런한 선수들이 고급중학교를 갖춘 졸업한 선수들에게 우승으로 가는 길을 내주며 체육대회는 련일 수많은 애호가들과 참관자들의 이

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애티나는 처녀로부터 여러명의 아이를 둔 가정부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망라된 선수들을 보아도, 관람석에서 그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많은 팀들과 선수들이 그리하였지만 특히 전문체육부

문의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애티나는 처녀로부터 여러명의 아이를 둔 가정부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망라된 선수들을 보아도, 관람석에서 그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많은 팀들과 선수들이 그리하였지만 특히 전문체육부

문의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애티나는 처녀로부터 여러명의 아이를 둔 가정부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망라된 선수들을 보아도, 관람석에서 그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시켰다는 황해남도팀의 감독인 윤홍남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경기에서 우승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전망적으로 선수후비양성에 힘을 넣는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해북도팀의 감독 박규명은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 체육을 대중화하여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7 대중체육부문경기에서도 배구종목

은 인기를 끄는 체육종목의 하나로 되었다. 특히 여자배구는 관람자들과 체육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그중에서도 자강도팀과 함경남도팀사이에서 진행된 여자배구경기는 예상을 뒤집어놓는 경기결과로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기시작전과 1회전 경기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번 경기가 함경남도팀의 승리로 끝날것이라고 예상하였었다. 그도 그럴것이 함경남도선수들에 비해 자강도선수들은 키가 전반적으로 작았고 먼저 1회전에서 진것으로 하여 심리적압박도 크게 받고있었다. 그런데 자강도팀에서는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 식의 경기전술을 잘 살려 함경남도팀

을 종합성적 2:1로 이기었다. 경기가 끝나자 관람자들은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쳐보인 랑팅선수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었다.

승리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말에 자강도팀의 박정옥감독은 《이번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다로동자, 사무원들로서 평상시 대중체육열풍속에 꾸준히 배구기술을 련마하여온 사람들이다. 주타격수로 활약한 공향심선수만 보더라도 강계포도솔공장 배구팀의 기동선수이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가 팀의 전술을 잘 살린데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앞으로 대중체육활동을 더 활발히 벌려나갈 결심을 펴려하였다.

본사기자 김철



손없는 사람들, 다리없는 사람들이 탁구경기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 수밖에 없다. 손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탁구채를 잡으며 다리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첩한 움직임을 필수로 하는 탁구를, 그것도 높은 정신력과 기술, 육체적능력으로 승부를 가르는 경기까지 할수 있던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 전문선수 못지않은 기술

사실 장애인 및 애호가 탁구경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자와 만난 홍수경 조선장애인체육협회 부원은 경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적권리를 향유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여주는 인민적시책속에서 공화국에서는 2010년부터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한번씩 진행되어오던것이 날이 갈수록 경기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경기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따라 2015년부터는 봄철과 가을로 나뉘어 한해에 두번씩 진행되고있다고 한다.

경기참가를 위한 희망자는 모두 경기에 참가할수 있으며 장애인부류와 나이별에 따르는 애호가부류로 나뉘어 단식과 복식으로 진행되는 경기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된 2017년 가을철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가 이를 잘 말해주었다.

이번 경기에는 장애인들과 애호가들만이 아니라 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도 참가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는 경기장을 둘러보았다. 우승의 꿈을 안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는 선수들의 모습, 관람석에서 울려나오는 열띤 응원의 목소리...

장애자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하는 경기인지라 전문가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는데 경기모습은 기자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상대편으로 길게 깎아 쳐넣기 한 공, 그것을 재치있게 받아넘기는 상대편선수, 이번에는 왼쪽으로 걸어치기, 가까스로 다시 넘어온 공의 방향을 바꾸어 강타!

순간 관람석에서 울리는 환호. 《야!—》 《잘한다.》 《이번 2017년 가을철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가 지난 시기의 경기들과 다른점이 있다면 참가 선수들의 기술이 눈에 띄우게 올라간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참가자수도 봄철때보다 늘어났고 경

기수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문선수들도 경기를 보고는 모두 놀랍니다.》 홍수경부원의 말이다.

《밝은 모습에 비끼고 고마운 시책 경기장에서 관람자들의 눈길을 끈것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모습이였다. 정상사람도 탁구를 잘 치기가 힘에 부친데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자들이 밝은 모습으로 탁구를 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정겹게 비쳐졌다.》

이번에 장애인과 애호가 조를 무어 진행하는 복식경기에서 1등을 한 리철성선수는 한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자이다.

처음에 관람자들은 경기를 보며 애호가부류에 속한 선수인줄 알았다. 민활한 움직임, 강한 걸어치기가 그의 특기였던지라 누구나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았다. 더우기 해

은 나라에 세차게 부는 체육열풍이 여기 탁구경기장에서도 자랑찬 결실을 보고있었다.

## 밝은 모습에 비끼고 고마운 시책

밝은 웃음을 짓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장애인이라는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피보아서야 한다리가 의족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처음에 탁구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짧은 운동바지를 입는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족을 바라보게 될거고 그러면 내가 정상사람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장애인체육협회의 선생님들이 나를 탁구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

원에 입선하였으며 2013년 제3차 아시아청년장애인대회에 참가하여 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그마한 탁구공으로 지구를 들어올린 박영순선수처럼 세계적인 탁구선수가 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번에 3등을 한 선수는 두손이 없는 김영록선수였다.

고무띠를 리용하여 체를 팔에 고정하고 탁구를 치는 김영록선수는 두손이 없는 장애인이라고는 믿을수 없을 정도로 높은 탁구기술을 보여주었다.

《지난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에서 1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3등을 했습니다. 좀 더 기술을 련마하여 2017년 아시아청년장애인대회에서는 꼭 우승의 영예를 지니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뜰히 보살펴준 이웃들과 선생님들,

# 꿈을 안고 사는 장애인체육인들

## —2017년 가을철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를 보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차별없이 넓은 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받아안는 사람치고 이런 보답의 꿈과 희망으로 마음을 불태우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의 탁구경기만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뜨거운 정과 사랑은 그대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수기능회 복원관 은정어린 장애인체육자랑실까지 속속들이 숨배여었다.

하기에 공화국의 장애인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국가적사랑과 배려에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고있다.

어제날 장애인체육인들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우러러 《사랑하노라》의 노래를 심장으로 불렀다면 오늘은 장애인체육인들이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을 휘날릴 꿈과 희망을 당당히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 촛불은 오늘도 라오른다

10월 29일은 남조선에서 박근혜퇴진촛불투쟁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박근혜, 최순실 《국정》 통단사건을 규탄단죄하며 남조선전역에서 대규모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는 올해 4월 29일까지 연 23차례 걸쳐 줄기차게 벌어져 박근혜 《정권》에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촛불투쟁의 승리는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력사를 전진시키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확증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촛불투쟁개시 1년을 맞으며 《사회개혁, 적폐청산, 평화호소》를 주제로 정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리명박구속, 트럼프의 대조선적대시정철회를 요구하여 촛불집회들을 다시 벌이고 있으며 1주년 기념행사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진행하여 온 전례에 따라 크게 개최하려 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적폐대상인 보수패당이 되살아나 력사를 퇴행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사회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촛불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으며 《촛불이후 <대통령>과 장관들만 바뀌고 근본적으로 바뀐것은 없다.》며 촛불민심에 역행하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이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전역에서 대규모적으로 진행된 촛불투쟁은 박근혜적폐당에 의해 더럽혀진 정치풍토를 갈아엎고 사회적정의와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장거였다.

최근 련속 드러나고있는 리명박, 박근혜 《정권》시기의 각종 정치추문사건들은 극악한 범죄집단으로서의 보수패당의 정체를 날같이 보여주고 있으며 만사람의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다시금 머리를 쳐들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도

전하면서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발악하고있다.

《박근혜무죄석방 1천만명서명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과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은 《태극기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박근혜년의 무죄를 주장하며 온갖 광기를 다 부리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도 《촛불정권》을 표방하지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수치스러운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배신행위로 하여 촛불투쟁의 소중한 열매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으며 북남관계와 남조선사회발전에 엄중한 해독이 끼쳐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력사를 전진시키는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촛불민심에 배척되게 놓아대다가는 박근혜당과 같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 한 낮의 개꿈

얼마전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미국행각을 떠나기에 앞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넘어서 핵동맹을 요청하기 위해 간다.》고 떠들었다. 그러면서 《절박한 <한국>의 안보상황을 미국조야에 전달》하고 《나토식핵동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췌쳐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자유한국당》의 역적무리들은 미국에 찾아가 전술핵무기재배치를 간청하다가 상전들의 땀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홍준표와 같은 망나니를 앞세워 전술핵무기구결행각에 나선것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야말로 췌물만 한 정치적주견이나 민족적량심도 없는 췌물대로 췌는 보수의 오물들이고

너절한 시정배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홍준표가 그 무슨 《핵균형》과 미국과의 《핵동맹》을 운운한것은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도, 공화국의 핵억제력의 사명도 알지 못하는 정치무식쟁이의 가소로운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따위나 끌어들이라고 하여 그 무슨 공화국과의 《핵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것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 낮의 개꿈이 아니고 무엇인가.

잘 모르면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편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미국상전들도 두려워하는 공화국의 핵억제력앞에서 가련한 제 쳐지도 분간할줄 모르고 《핵균형》과 《핵동맹》을 운운하는것을 보면 홍준표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수 있다.

전술핵무기구결행각에 앞장선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추태는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 민족을 기어코 핵참화속에 밀어넣으려는 친주에 용납 못할 반역적망동이다. 아울러 그것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 구도의 《안보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파멸의 나락에 물린 저들의 정치적존재를 유지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극악한 동족대결과 더러운 당리당략을 추구하며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결정한것도 모자라 미국의 핵무기재배치까지 구결하며 돌아치는 민족반역당에 남조선민심은 등을 돌린지 오래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 분별없이 날뛰는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망동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 전쟁미치광이를 《국빈》으로 맞이하려 한다

다음달로 예견된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앞두고 지금 남조선당국과 여야 정객들이 경쟁적으로 비굴한 친미사대적인 추태를 부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트럼프의 행각이 《25년만의 <국빈방문>》이며 《이번 동아시아순방기간 <국회>에서 연설하는것 <한국> 뿐》이라고 역격해 놀아내고있다. 그러면서 《두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보여주는 친교행사가 진행될 계획》, 《<한> 미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고있다.

그러나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의 방문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북의 핵과 미싸일도발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하면서 야당들이 적극 협력해줄것을

구결하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1박 2일로 예견된 트럼프의 행각기간을 놓고 《<국빈방문> 임에도 2박3일 머무는 주변 나라들보다 짧다. 분명 <한국>에 대한 홀대다.》, 《<한> 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의 외교적무능이 낳은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당국을 몰아대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트럼프가 5일 오후 도교에 도착하는것만큼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는 시간은 비슷하다.》, 《체류기간보다 정상회담성과 같은 방문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구차한 입씨름을 벌이고있다.

이것은 사대와 굴종에 췌들대로 췌는 남조선에서 볼수 있는 정치만화로써 미국의 특등노복, 식민지하수인들의 쓸개빠진 망

둥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세계 그 어디를 보아도 미국상전을 하루라도 더 《모시지 못해》 몸살을 앓다옹하는 추물들은 오직 남조선에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분렬의 원흉이며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미국은 남조선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시키고 실제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오늘날도 참을수 없는 재난과 치욕을 강요하고있다. 남조선도처에 등지를 든 미제침략군기자들은 잔악무도한 범죄의 소굴로 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다놓고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시시각각 몰아오고있다.

더우기 트럼프로 말하면 그 무슨 《완전과피》

와 《절멸》을 고아대며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도 조선사람이 죽는다고 망발한 미국의 전쟁상인, 미치광이피수이다.

트럼프의 행각이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측의 울가미를 더욱 바싹 조이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을 달기 위한 침략자, 전쟁광의 행각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몽둥이로 맞이해도 췌원치 않을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를 《국빈》으로 개여올리며 환대하지 못해 집안싸움까지 벌리는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들의 매국적쳐사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미국의 치욕스러운 식민지 굴레에 저저마다 머리를 들이미는 추물들은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리선희



최근 박근혜역도가 제년의 《법률자문회사》인 MH그룹을 내세워 《더럽고 차거운 감방에 갇혀있다.》, 《잠을 제대로 잘수 없게 계속 불을 췌는수 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되고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담은 《인권침해보고서》라는것을 만들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하고 미국의 CNN을 통해 여론화하는 놀음을 벌려놓아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비난세례를 받고있다.

남조선의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역도년의 수작질에 즉각 반발하여 《사실이 아니다.》, 《처음부터 접이식팔걸을 사용하고있다.》, 《저녁에 췌는 취침등도 축수가 매우 낮아 잠을 자는데 지장이 없다.》고 조목조목 까뻐하며 전면 부인해

## 낮가죽이 두꺼운 파렴치한, 지독한 악마

해자가 오히려 국제기구에게까지 제소하고있으니 창피하기 그지없다. 인권침해주장을 계속하면 독박근혜를 가차없이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박근혜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천하역적짓만 일삼은 역도년을 단호히 심판할 초불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집권기간 《유신》과 췌독재의 부활로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벌모

을 하고있는 박근혜가 인권침해를 떠든다. 확실히 국민은 개, 돼지이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다그쳐 박근혜를 가차없이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박근혜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천하역적짓만 일삼은 역도년을 단호히 심판할 초불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집권기간 《유신》과 췌독재의 부활로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벌모

통채로 바다에 수장시키려 생존권을 요구하여 시위에 나선 농민에게 물대포를 췌아대어 숨지게 만든것을 비롯하여 박근혜년이 감행한 반인권적범죄행위는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야수적만행의 극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한 죄의식은 췌물만큼도 없이 오히려 정치보복이라고 행악질을 해대다 못해 그 무슨 《인권침해》 녀두리까지 췌쳐대고있는 역도

년인것이다. 벼룩도 낮짝이 있다는데 박근혜년과 같이 낮가죽이 두꺼운 파렴치한, 지독한 악마는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독사같은 박근혜년을 살려두면 앞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어떤 끔찍한 참변을 당할지 알수 없다.

박근혜 잔당들이 역도년과 공모하여 유엔인권기구에 제소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궁지에 몰린 보수패당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퇴진 촛불투쟁 1년을 계기로 전개되는 적폐청산촛불투쟁만 놓고보아도 박근혜년과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잘 알수 있다.

그 초불은 다시 거대한 초불바다가 되어 악의 세력을 다시는 솟구치지 못하게 태워버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